

WEBVTT

00:00:10.015 --> 00:00:12.228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김태동 선생님입니다.

00:00:12.328 --> 00:00:14.856

오늘 이 시간에는 대장금이라고 해서

00:00:14.956 --> 00:00:16.624

첫 번째 시나리오가 하나 나올 거고

00:00:16.724 --> 00:00:19.044

그다음에 뒤에는 수필이 나왔습니다.

00:00:19.144 --> 00:00:21.277

상당히 짧은 강의가
될 것 같습니다.

00:00:21.377 --> 00:00:22.414

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.

00:00:22.514 --> 00:00:27.339

대장금은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
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

00:00:27.439 --> 00:00:31.576

그리고 모의고사에도 한 번
출제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.

00:00:31.676 --> 00:00:36.495

드라마 대본이 이제 드디어 나올
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
00:00:36.595 --> 00:00:38.634

문제를 한번 가볼게요.

00:00:38.734 --> 00:00:40.666

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

00:00:40.766 --> 00:00:43.457

등장인물이 누구 누구 있는지
확인하고 가겠습니다.

00:00:43.557 --> 00:00:48.691

백영은, 박 나인은,
장금은, 최 상궁의 고모는

00:00:48.791 --> 00:00:50.670

최 상궁 나오고 고모도 있고.

00:00:50.770 --> 00:00:53.544

최 상궁을 임금을 직접
만나고자 했다.

00:00:53.644 --> 00:00:55.082

이런 내용들이 나와있네요.

00:00:55.182 --> 00:00:58.180

어차피 이 글의 내용과

일치하는 않는 것은, 이니까

00:00:58.280 --> 00:01:01.587

이 내용들을 쪽 보고
나서 무슨 생각을 하나면

00:01:01.687 --> 00:01:04.021

이게 어차피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.

00:01:04.121 --> 00:01:05.412

나머지 4개는 다 맞는 거 아니야?

00:01:05.512 --> 00:01:08.003

그러니까 그게 힌트가
될 수 있겠죠.

00:01:08.103 --> 00:01:12.381

그다음 2번, S# 25~S# 28의
장면을 삽입해서 얻을 수 있는

00:01:12.481 --> 00:01:14.606

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01:14.706 --> 00:01:18.762

삽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
효과니까 그 삽입된 장면에서

00:01:18.862 --> 00:01:21.694

인물의 심리나 아니면
인물 간의 관계나

00:01:21.794 --> 00:01:24.460

이런 것들이 어떻게
변화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.

00:01:24.560 --> 00:01:28.039

3번은 극의 흐름을 고려해서
S# 23을 드라마로 연출하려고 한다.

00:01:28.139 --> 00:01:30.406

이때 연출가의 지시사항으로
가장 적절한 거.

00:01:30.506 --> 00:01:34.752

S# 23이 어떤 내용일까를
보면 될 것 같아요.

00:01:34.852 --> 00:01:39.765

그다음에 ㄱ~ㄴ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1:39.865 --> 00:01:43.269

대화의 의도를 찾는
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

00:01:43.369 --> 00:01:47.011

이 드라마 봤으면 정말 좋았을
텐데, 저도 못 봤습니다.

00:01:47.111 --> 00:01:52.248

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

연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
00:01:52.348 --> 00:01:55.524
S# 23입니다, 움막이고요.

00:01:55.624 --> 00:01:57.565
고민하고 있던 최 상궁입니다.

00:01:57.665 --> 00:02:00.464
우선 최 상궁이라는 인물이
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.

00:02:00.564 --> 00:02:03.594
긍정적인 인물인지 부정적인
인물인지 생각하고 가야죠.

00:02:03.694 --> 00:02:06.217
순간 문득 뭔가 떠오른 듯

00:02:06.317 --> 00:02:11.771
최 상궁 (마치 뭔가 될 듯이) 그래!
내 직접 전하를 뵙자!

00:02:11.871 --> 00:02:14.721
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,
최 상궁이라는 인물이.

00:02:14.821 --> 00:02:16.539
죽어도 전하 앞에서 죽어!

00:02:16.639 --> 00:02:21.816
4번에 1번 보면, 최 상궁이
큰 결심을 했음을 드러냈다.

00:02:21.916 --> 00:02:24.715
죽어도 전하 앞에서
죽겠다고 이야기한 거니까

00:02:24.815 --> 00:02:28.347
큰 결심을 했음을 드러내는
말이다, 적절하겠죠.

00:02:28.447 --> 00:02:30.879
그리고는 별떡 일어나서 나가려는데,

00:02:30.979 --> 00:02:34.834
어느새 들어와 있는
장금이가 등장을 합니다.

00:02:34.934 --> 00:02:37.147
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.

00:02:37.247 --> 00:02:38.990
놀라는 최 상궁이 나오죠.

00:02:39.090 --> 00:02:41.539
놀라는 최 상궁 놀라기도 잠시,

00:02:41.639 --> 00:02:44.160
매서운 눈빛으로
장금을 노려보다가는

00:02:44.260 --> 00:02:46.297

따뜻한 시선으로 본 것
같지는 않습니다.

00:02:46.397 --> 00:02:51.492

그럼 최 상궁과 장금이 서로
대립적인 인물이라는 것도

00:02:51.592 --> 00:02:53.369

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.

00:02:53.469 --> 00:02:57.499

매서운 눈빛으로 장금을
노려보다가는 장금의 뺨을 치려는데

00:02:57.599 --> 00:03:00.932

그런 최 상궁의 손을 막는다.

00:03:01.032 --> 00:03:05.063

전형적인 장면 있잖아요?
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.

00:03:05.163 --> 00:03:08.412

아무튼 여기까지는 갈등
관계가 있다는 거고.

00:03:08.512 --> 00:03:10.997

저는 이미 마마님께 기회를
드릴 만큼 드렸습니다.

00:03:11.097 --> 00:03:14.869

마마님이라는 게
누구나면 최 상궁이겠죠.

00:03:14.969 --> 00:03:18.757

최 상궁께 기회를 드릴
만큼 드렸습니다.

00:03:18.857 --> 00:03:21.311

기회? 무슨 기회? 죽을 기회?

00:03:21.411 --> 00:03:23.340

아뇨. 명예로우실 수 있는 기회요.

00:03:23.440 --> 00:03:25.107

명예롭게 가실 수 있는 기회요!

00:03:25.207 --> 00:03:28.699

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립이
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.

00:03:28.799 --> 00:03:33.200

4번에 2번을 보면 장금이 한
말을 비꼬아서 듣고 한 말이다.

00:03:33.300 --> 00:03:35.701

그렇죠, 기회? 무슨 기회?
죽을 기회?

00:03:35.801 --> 00:03:37.123

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이야.

00:03:37.223 --> 00:03:39.972

명예로우실 수 있는 기회요.
명예롭게 가실 수 있는 기회요!

00:03:40.072 --> 00:03:41.838

명예? 뭣이? 하!

00:03:41.938 --> 00:03:45.063

대체 무엇이 마마님을
이렇게 만드는 겁니까?

00:03:45.163 --> 00:03:49.149

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위험하고 게다가
비참하기까지 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?

00:03:49.249 --> 00:03:52.151

대체 마마님을 이렇게 만드는
정체는 뭐난 말입니다!

00:03:52.251 --> 00:03:54.590

부다. 권력이다! 집안이다!

00:03:54.690 --> 00:03:58.642

부와 권력을 위해서 어떤, 어떤
음모를 꾸몄던 거 같습니다.

00:03:58.742 --> 00:04:03.438

ㄷ은 최 상궁의 의중을
떠보기 위해서 한 말이다.

00:04:03.538 --> 00:04:07.515

대체 마마님을 이렇게 만드는
정체는 뭐난 말입니까?

00:04:07.615 --> 00:04:08.902

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?

00:04:09.002 --> 00:04:11.549

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
말하고자 하는 것은

00:04:11.649 --> 00:04:14.763

최 상궁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
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.

00:04:14.863 --> 00:04:17.310

도대체 왜 그러십니까? 그러지
마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04:17.410 --> 00:04:18.574

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.

00:04:18.674 --> 00:04:20.217

부다. 권력이다! 집안이다!

00:04:20.317 --> 00:04:23.450

허탈하여, 그게 마마님
자신보다 소중한니까?

00:04:23.550 --> 00:04:26.641

마마님 목숨과 마마님의
명예보다 소중한니까?

00:04:26.741 --> 00:04:29.831

마마님의 이름이 이 궁에 어찌
남을지 생각해 보았습니까?

00:04:29.931 --> 00:04:31.702

명예롭지 못합니다.

00:04:31.802 --> 00:04:35.968

내가 이기면 내 목숨도 내
이름도 더럽혀져 남겠으나

00:04:36.068 --> 00:04:38.603

내가 이기면 명예롭게 남겠지.

00:04:38.703 --> 00:04:43.537

지금 어떤 대결 상황이고
최 상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

00:04:43.637 --> 00:04:45.553

부, 명예, 권력 이런 거니까.

00:04:45.653 --> 00:04:49.040

그게 부야! 그게 권력이야!
가지지 못한 것들은 몰라!

00:04:49.140 --> 00:04:52.670

한번 권력에 맞들인 사람들은
그거를 씻어버리기 힘들잖아요.

00:04:52.770 --> 00:04:54.851

그래서 장금이를
이겨야겠다고 생각해서

00:04:54.951 --> 00:04:57.059

어떤, 어떤 계략을 짠 거 같죠.

00:04:57.159 --> 00:05:00.094

그래서 난 내 손에 쥔
힘을 놓을 수가 없다.

00:05:00.194 --> 00:05:02.863

그래서 제가 그 움켜쥔 손을
놓아 드리려는 겁니다.

00:05:02.963 --> 00:05:07.573

부라 여기며 권력이라 여기며 움켜쥔
손을 한번이라도 펴 보세요.

00:05:07.673 --> 00:05:10.129

그 속엔 부와 권력이
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

00:05:10.229 --> 00:05:13.285

애틋한 사람들의 피와
눈물만이 들어 있을 겁니다.

00:05:13.385 --> 00:05:15.628

최 상궁

00:05:15.728 --> 00:05:17.136

그게 마마님의 손입니다!

00:05:17.236 --> 00:05:18.145

최 상궁

00:05:18.245 --> 00:05:19.588

뭔가 이제 깨달은 것 같지 않아요?

00:05:19.688 --> 00:05:21.070

아니면 뭔가 심적인 동요가 있고.

00:05:21.170 --> 00:05:23.940

이거를 표정 연기로 보면 우리가
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

00:05:24.040 --> 00:05:27.059

..... 이면 애가 도대체
무슨 생각하고 있는지

00:05:27.159 --> 00:05:29.441

뒤에서 칼을 준비하고 있는
건지 모르는 거잖아요.

00:05:29.541 --> 00:05:30.928

글로만 써있으니까.

00:05:31.028 --> 00:05:35.153

이미 전하께서는 뜻을 정하시어
최 판술 상단의 모든 재산이 환수됐고

00:05:35.253 --> 00:05:41.569

최 판술과 오겸호 우상 대감,
금영이까지 모두 잡혀갔습니다.

00:05:41.669 --> 00:05:44.510

뭔가 계략들이 전부 다
들통이 난 것 같죠.

00:05:44.610 --> 00:05:48.475

그리고 나서 전하한테 아까
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

00:05:48.575 --> 00:05:51.388

죽어도 전하 앞에서 죽어!
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

00:05:51.488 --> 00:05:54.874

전하한테 마지막 억울함을 하소연하기
위해서 가고 싶었던 거겠죠.

00:05:54.974 --> 00:05:56.434

최 상궁

00:05:56.534 --> 00:06:01.150

마마님이 의금부에 가지 않으시면 금영이가
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돼 있습니다.

00:06:01.250 --> 00:06:03.055

금영이라는 인물도 있죠.

00:06:03.155 --> 00:06:04.608
금영이라는 말에 흔들리는데.

00:06:04.708 --> 00:06:06.297
최 상궁이 아끼는 사람인가봐요.

00:06:06.397 --> 00:06:10.354
한 상궁 마마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
없는 죄도 뒤집어 쓰셨습니다.

00:06:10.454 --> 00:06:12.309
한 상궁 마마님이라는 사람이,

00:06:12.409 --> 00:06:16.909
한 상궁하고 최 상궁이니까 뭔가
둘이 같은 계열인 것 같고.

00:06:17.009 --> 00:06:20.559
장금이하고 금영이가 같은
계열인 거 같은 느낌이죠.

00:06:20.659 --> 00:06:24.948
한 상궁 마마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
없는 죄도 뒤집어 쓰셨습니다.

00:06:25.048 --> 00:06:27.925
그것만은 마마님도 같을
거라고 믿습니다.

00:06:28.025 --> 00:06:32.813
그러니까 이 금영이라는 애 때문에
최 상궁이 심적으로 흔들릴 것 같아.

00:06:32.913 --> 00:06:34.376
의금부로 가십시오.

00:06:34.476 --> 00:06:36.514
하고는 장금은 나간다.

00:06:36.614 --> 00:06:39.994
최 상궁, 나가는 장금을
보며 멍하니 서 있다.

00:06:40.094 --> 00:06:42.954
뭔가 깨우친 것 같다는
느낌이 들죠.

00:06:43.054 --> 00:06:43.970
중략.

00:06:44.070 --> 00:06:45.598
S# 25, 움막입니다.

00:06:45.698 --> 00:06:47.598
눈물도 나지 않는 최 상궁.

00:06:47.698 --> 00:06:51.365
급기야 광기 어린 눈빛은
사라지고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지

00:06:51.465 --> 00:06:53.593
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간다.

00:06:53.693 --> 00:06:56.265
뭔가 깨달음을 얻고
있는 것 같습니다.

00:06:56.365 --> 00:06:59.236
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,
반성하는 것 같죠.

00:06:59.336 --> 00:07:00.738
옴막 밖입니다.

00:07:00.838 --> 00:07:02.859
밖으로 나오는 최 상궁.
어디론가 간다.

00:07:02.959 --> 00:07:05.772
그런 모습을 한 권에서
보고 있는 장금.

00:07:05.872 --> 00:07:08.227
S# 27 길, 밤입니다.

00:07:08.327 --> 00:07:10.001
무작정 걷고 있는 최 상궁.

00:07:10.101 --> 00:07:11.309
산길입니다, 밤입니다.

00:07:11.409 --> 00:07:17.145
무작정 걷고 있는 최 상궁의 위로
최 상궁의 과거 회상 장면이 펼쳐진다.

00:07:17.245 --> 00:07:21.084
회상 장면이 펼쳐지고
중략된 이전이니까

00:07:21.184 --> 00:07:23.594
그러면 여기 S# 29 같은 경우는

00:07:23.694 --> 00:07:27.302
바로 과거 회상에 대한
내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.

00:07:27.402 --> 00:07:29.710
왜? 여기 과거 회상의 장면이
펼쳐진다고 했으니까.

00:07:29.810 --> 00:07:32.146
아닐 수도 있는 거고,
중략된 내용 밑에 볼게.

00:07:32.246 --> 00:07:34.102
박 나인 돌무덤입니다.

00:07:34.202 --> 00:07:41.158
박 나인은 왕과 왕비를 가까이
모시는 몸종들이죠.

00:07:41.258 --> 00:07:45.027

결국 최 상궁이 가 있는
곳은 박 나인의 돌무덤이다.

00:07:45.127 --> 00:07:46.974

그전에 회상 장면이 나왔었나봐요.

00:07:47.074 --> 00:07:49.954

앉아 있는 최 상궁.
침착해진 표정인데...

00:07:50.054 --> 00:07:55.495

난 널 용서할 수가 없어.
본 것을 묻어 두지...

00:07:55.595 --> 00:08:00.115

여기서 너는 박 나인이잖아요.

00:08:00.215 --> 00:08:02.926

왜? 박 나인 무덤이라고 했으니까.

00:08:03.026 --> 00:08:04.478

박 나인의 돌무덤이니까.

00:08:04.578 --> 00:08:08.094

4번에 르 볼까요?

00:08:08.194 --> 00:08:10.516

최 상궁이 혼자 독백을 하고
있죠, 무덤 앞이니까요.

00:08:10.616 --> 00:08:12.841

왜 기미 상궁에게 이야기를 했는지.

00:08:12.941 --> 00:08:14.425

기미 상궁, 밑에 볼까요?

00:08:14.525 --> 00:08:18.682

임금의 수라 음식에 독이 있는지
먼저 보는 역할을 하는 상궁입니다.

00:08:18.782 --> 00:08:20.757

왜 기미 상궁에게 얘기를 했는지.

00:08:20.857 --> 00:08:24.133

그날, 그 일을 왜 보았는지...

00:08:24.233 --> 00:08:27.642

본 아이가 왜 하필이면 너였는지....

00:08:27.742 --> 00:08:37.067

그러고도 모자라 딸을 궁으로 들여보내고...
독한 것! 질긴 것!

00:08:37.167 --> 00:08:39.500

수백 번 수천 번도
더 원망을 했어.

00:08:39.600 --> 00:08:42.813

네가 그때 보지 않았다면...

어떤 일이 있었나봐요.

00:08:42.913 --> 00:08:44.787

아니, 절대로 보지 않기를....

00:08:44.887 --> 00:08:48.776

그런 일로 너와 내가 부딪히지
않기를 얼마나 바랐었는데...

00:08:48.876 --> 00:08:52.712

이 박 나인이라는 사람이랑 옛날에
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죠.

00:08:52.812 --> 00:08:59.323

제가 이거 미리 말을 해둘까요?

00:08:59.423 --> 00:09:02.900

여기서 딸을 궁으로
들여보냈다고 했잖아요.

00:09:03.000 --> 00:09:05.364

그 딸이 바로 장금입니다.

00:09:05.464 --> 00:09:07.806

아니, 절대로 보지 않기를...

00:09:07.906 --> 00:09:09.728

그런 일로 부딪히지 않기를
얼마나 바랐었는데..

00:09:09.828 --> 00:09:10.797

깊은 한숨이 나오고.

00:09:10.897 --> 00:09:16.685

만약 내가 박 명의로 태어나고,
박 명이가 바로 박 나인이겠죠.

00:09:16.785 --> 00:09:19.446

네가 최성금으로 태어났다면
우린 달랐을까?

00:09:19.546 --> 00:09:21.506

최성금이 바로 최 상궁이겠죠.

00:09:21.606 --> 00:09:25.820

너나 백영이가 우리 집안에서
태어났다면 집안에서 자유로웠을까?

00:09:25.920 --> 00:09:27.565

궁금하구나.

00:09:27.665 --> 00:09:31.403

여기서 백영이라는
인물은 한 상궁입니다.

00:09:31.503 --> 00:09:33.333

장금에게 도움을 줬던
그 한 상궁이에요.

00:09:33.433 --> 00:09:35.646

궁금하구나. 참으로 궁금해.

00:09:35.746 --> 00:09:38.855
하여 네가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.

00:09:38.955 --> 00:09:41.885
내 악행의 시작점이 너니까.

00:09:41.985 --> 00:09:43.813
이 박 나인 때문에
시작된 것 같아요.

00:09:43.913 --> 00:09:47.699
4번에 5번, 최 상궁이 박 나인의 돌무덤에
온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죠.

00:09:47.799 --> 00:09:51.988
백영이도 나로 인해 갔지만
백영이는 최고 상궁도 했고

00:09:52.088 --> 00:09:55.776
나를 괴롭히기도 했고, 아까
이야기했던 한 상궁입니다.

00:09:55.876 --> 00:09:58.948
네 딸로 인해 즐겁기도
했으니, 네 딸은 장금입니다.

00:09:59.048 --> 00:10:01.611
원은 없을 거야,
원망은 없을 거다.

00:10:01.711 --> 00:10:05.179
허나 너는... 믿었던 나에게
꿈에도 생각지 못한 나에게

00:10:05.279 --> 00:10:07.233
소리 한 번 제대로
내지 못한채 갔으니

00:10:07.333 --> 00:10:11.616
내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그건
너야, 용서를 비는 거죠.

00:10:11.716 --> 00:10:13.740
네게만은 용서를 비마!

00:10:13.840 --> 00:10:15.691
그런 집안에서 태어난
날 용서해 다오.

00:10:15.791 --> 00:10:18.809
집안에서 벗어날 수
없었던 날 용서해 다오!

00:10:18.909 --> 00:10:21.654
집안을 위해 그런 짓을
시킨 내 고모님을 용서하고

00:10:21.754 --> 00:10:26.202
그 위의 고모님, 그 위의
고모님, 그 위의 고모님...

00:10:26.302 --> 00:10:29.477

그리고 고모님들을 이용한
양반들을 용서해 다오!

00:10:29.577 --> 00:10:31.499

안 되겠니? 안 되겠어?

00:10:31.599 --> 00:10:36.067

그러니까 대대로 악행을 저질러왔던
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

00:10:36.167 --> 00:10:37.629

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.

00:10:37.729 --> 00:10:43.446

그리고 그것 때문에, 그것을 봤던
박 나인이 장금이 어머니잖아요?

00:10:43.546 --> 00:10:46.201

장금이 어머니가 뭔가
죽임을 당했던 것 같고.

00:10:46.301 --> 00:10:49.201

그런 이야기를 우리가
짐작할 수 있습니다.

00:10:49.301 --> 00:10:50.827

지문 소화제 볼게요.

00:10:50.927 --> 00:10:52.717

최 상궁은 어려운 상황에
처해 있다, 당연히 맞죠.

00:10:52.817 --> 00:10:55.551

최 상궁은 부와 권력을
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다.

00:10:55.651 --> 00:10:59.586

집안도 중시하는 거니까 맞죠.

00:10:59.686 --> 00:11:03.538

S# 25~S# 28에 나타나는 이동을
통해 최 상궁은 어디로 향했다?

00:11:03.638 --> 00:11:07.325

박 나인의 무덤으로 향했다는
거를 알 수 있습니다.

00:11:07.425 --> 00:11:11.461

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

00:11:11.561 --> 00:11:14.069

백영은 최고 상궁의
지위에 올랐었다.

00:11:14.169 --> 00:11:16.586

맞죠, 백영이가 바로 한 상궁인데

00:11:16.686 --> 00:11:19.591

여기서는 한 상궁인 거를 몰랐어도

최고 상궁에 올랐다는 게

00:11:19.691 --> 00:11:23.263

마지막 최 상궁의 대화를
통해서 알 수 있었죠.

00:11:23.363 --> 00:11:26.428

박 나인은 생전에 최 상궁과
가까이 지냈다.

00:11:26.528 --> 00:11:31.099

그랬는데 그것을 본 이후로
내가 너를 죽이게 되고

00:11:31.199 --> 00:11:32.808

이런 사건들이 나왔죠.

00:11:32.908 --> 00:11:35.639

장금은 최 상궁의 악행을 막으려
하는 인물이다, 맞죠.

00:11:35.739 --> 00:11:40.256

최 상궁의 고모는 최 상궁의 잘못을
덮어 주기 위해 애썼다.

00:11:40.356 --> 00:11:41.922

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어요.

00:11:42.022 --> 00:11:44.998

내 고모님도, 고모님도,
그 위의 고모님도

00:11:45.098 --> 00:11:49.465

집안을 위해 그런 짓을
시킨 내 고모님이니까

00:11:49.565 --> 00:11:53.130

잘못을 덮어준 게 아니라 잘못을
오히려 시킨 거죠, 뒤에서.

00:11:53.230 --> 00:11:56.114

최 상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임금을 직접 만나고자 하였다.

00:11:56.214 --> 00:11:57.679

처음에 전하 앞에서 죽어야겠어!

00:11:57.779 --> 00:12:01.789

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정답은
4번인 거를 알 수 있죠.

00:12:01.889 --> 00:12:07.013

S# 25~S# 28의 장면을 삽입해서
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2:07.113 --> 00:12:10.022

25에서 28은 걷는
있는 장면이 짧아요.

00:12:10.122 --> 00:12:13.390

극복하려는 인물의 노력이다.

00:12:13.490 --> 00:12:16.261

심리의 변화가 생겼음을
간접적으로 보여준다.

00:12:16.361 --> 00:12:17.991

정답은 2번이에요.

00:12:18.091 --> 00:12:19.653

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

00:12:19.753 --> 00:12:22.880

애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카메라가
최 상궁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죠.

00:12:22.980 --> 00:12:27.110

움막에서 움막 밖으로 길, 산길까지 가고
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

00:12:27.210 --> 00:12:30.096

심리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
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,

00:12:30.196 --> 00:12:35.206

계속 걸으면서 그다음에 실제로
S# 29, 돌무덤 앞에서

00:12:35.306 --> 00:12:38.170

인물의 심리가 변화가 생겼으니깐요.

00:12:38.270 --> 00:12:41.749

인물의 심리가, 인물이 잘못했다고
이야기를 했으니깐요.

00:12:41.849 --> 00:12:44.064

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
하는 게 맞겠죠.

00:12:44.164 --> 00:12:46.355

새로운 목적지를 찾아
나서는 거 아니고.

00:12:46.455 --> 00:12:48.283

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
않는 것도 아니죠.

00:12:48.383 --> 00:12:51.285

대사가 전혀 없이 전개되기
때문에 사건이 긴박감 있게,

00:12:51.385 --> 00:12:52.944

긴박감 있게 전개되는 것도 아니죠.

00:12:53.044 --> 00:12:56.969

카메라를 생각해 보면 같이 뒤따라
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.

00:12:57.069 --> 00:13:00.506

그러니까 긴박감 있게 전개되고
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.

00:13:00.606 --> 00:13:04.149
긴박감 있게 전개된다고 하면

00:13:04.249 --> 00:13:07.214
긴박감은 갈등이 고조되거나

00:13:07.314 --> 00:13:13.519
사건이 진행되면서 갈등이
첨예하게 대립되거나

00:13:13.619 --> 00:13:17.898
사건이 진행되면서 사건
간의 갈등이 또 고조되거나

00:13:17.998 --> 00:13:21.260
이러면 긴박감 있게 진행된다고
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

00:13:21.360 --> 00:13:23.387
여기서는 긴박감이라는
거를 찾을 수 없죠.

00:13:23.487 --> 00:13:26.430
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

00:13:26.530 --> 00:13:27.825
3번 볼게요.

00:13:27.925 --> 00:13:30.567
극의 흐름을 고려하여 S# 23을
드라마로 연출하려고 한다.

00:13:30.667 --> 00:13:32.713
이때 연출가의 지시 사항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3:32.813 --> 00:13:34.752
S# 23입니다.

00:13:34.852 --> 00:13:38.346
최 상궁과 둘이 대화하고
있는 장면이 나왔네요.

00:13:38.446 --> 00:13:39.925
적절하지 않은 것을
고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

00:13:40.025 --> 00:13:46.128
장금을 연기하는 배우는 강경한
목소리로 대사를 해 주세요.

00:13:46.228 --> 00:13:48.465
최 상궁 잘못됐습니다,
그러시면 아니됩니다.

00:13:48.565 --> 00:13:51.566
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강경한
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

00:13:51.666 --> 00:13:54.881
두 인물의 대화에 집중하도록

효과음은 넣지 않는 게 좋겠군요.

00:13:54.981 --> 00:13:58.057

효과음 넣을 필요는 없다는
거를 알 수 있겠죠.

00:13:58.157 --> 00:14:01.625

두 인물의 대화가 중심이니까
대화에 집중하게 하는 거겠죠.

00:14:01.725 --> 00:14:05.274

그다음에 장면의 후반부에서는
장금과의 대화를 통해

00:14:05.374 --> 00:14:08.213

최 상궁의 심경에 변화가 있음을
눈빛으로 연기해 주세요.

00:14:08.313 --> 00:14:12.506

마지막 부분에 한 상궁
때문에 뒤집어 씹니다.

00:14:12.606 --> 00:14:14.728

그다음에 최 상궁이
계속 대화가 없죠.

00:14:14.828 --> 00:14:18.009

..... 으로 나타나 있으니까
눈빛으로 연기해 주세요, 가능합니다.

00:14:18.109 --> 00:14:20.684

대사의 뜻을 시청자에게
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

00:14:20.784 --> 00:14:24.765

장금의 대사에 따라 최 상궁의 손을
클로즈업한 화면을 삽입합니다.

00:14:24.865 --> 00:14:31.627

정답은 뭐냐면 손과 관련된
대사를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

00:14:31.727 --> 00:14:34.328

손이라는 거를 클로즈업할 필요 없이

00:14:34.428 --> 00:14:43.686

대사의 뜻을 전달하게 하려면 얼굴이나
이런 것들이 더 클로즈업이 돼야겠죠.

00:14:43.786 --> 00:14:50.860

그러니까 손과 관련된 대사를
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

00:14:50.960 --> 00:14:54.132

손을 클로즈업하는 화면은 삽입할
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.

00:14:54.232 --> 00:14:56.399

그러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.

00:14:56.499 --> 00:14:59.030

장면의 초반부에서는 두 인물의
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도록

00:14:59.130 --> 00:15:01.966

최 상궁을 연기하는 배우는
표정을 매섭게 지어 주시고

00:15:02.066 --> 00:15:03.007

힘주어 대사를 해 주세요.

00:15:03.107 --> 00:15:04.742

처음에는 그런 게 필요하죠.

00:15:04.842 --> 00:15:06.386

정답은 4번입니다.

00:15:06.486 --> 00:15:09.110

4번 문제는 아까 읽으면서
그대로 확인했고요.

00:15:09.210 --> 00:15:11.037

정답은 3번이었습니다.

00:15:11.137 --> 00:15:14.307

그다음에 실전 문제
네 번째 볼게요.

00:15:14.407 --> 00:15:16.024

다듬이라는 수필인데요.

00:15:16.124 --> 00:15:20.075

이 수필은 정진권의
다듬이라는 수필입니다.

00:15:20.175 --> 00:15:21.169

1번 볼게요.

00:15:21.269 --> 00:15:23.316

윗글에 대한 설명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5:23.416 --> 00:15:28.833

윗글에 어떻게 전개되고있는지만
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.

00:15:28.933 --> 00:15:31.195

2번 문제는 보기를
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

00:15:31.295 --> 00:15:32.945

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
해당하지 않는 것은?

00:15:33.045 --> 00:15:34.901

수필은 때때로 지식을 전달한다.

00:15:35.001 --> 00:15:37.044

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.

00:15:37.144 --> 00:15:39.479

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.

00:15:39.579 --> 00:15:42.872
만일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논설물이나
설명문에 미칠 수 없다.

00:15:42.972 --> 00:15:44.718
수필이 독자에게 주고자
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

00:15:44.818 --> 00:15:47.056
정서적 만족감이다,
이게 가장 핵심이에요.

00:15:47.156 --> 00:15:49.699
그것은 감동일 수도 있고
공감일 수도 있다.

00:15:49.799 --> 00:15:53.119
더러 독자는 이런 만족을 맛보기
위하여 수필을 읽는 것이다.

00:15:53.219 --> 00:15:54.670
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15:54.770 --> 00:15:57.524
그러면 이 다듬이를 통해서
어떤 감동을 얻을 수 있는지

00:15:57.624 --> 00:16:00.248
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인
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

00:16:00.348 --> 00:16:02.364
그거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.

00:16:02.464 --> 00:16:05.870
3번은 다듬잇돌에 대한 설명으로
적절한 것끼리 묶어라.

00:16:05.970 --> 00:16:09.726
과거 회상의 매개체인지
전통 문화에 대한 향수인지

00:16:09.826 --> 00:16:12.662
어머니에 대한 자식의
평가가 있는 건지

00:16:12.762 --> 00:16:16.686
인물의 복잡한 내적 갈등이 표현된
건지 그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.

00:16:16.786 --> 00:16:17.741
요 얼마 전에 이사를
한 일이 있다.

00:16:17.841 --> 00:16:20.417
구체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죠.

00:16:20.517 --> 00:16:23.707
수필은 화자 자신, 글쓴이 자신의
경험이 나타나 있으니까.

00:16:23.807 --> 00:16:28.571
그때 나는 다듬잇돌을 들어다 실으면서
잠시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.

00:16:28.671 --> 00:16:31.600
어린 시절을 생각했다는 거니까
회상 장면이 들어가면 되겠죠.

00:16:31.700 --> 00:16:33.199
회상하고 있는 겁니다.

00:16:33.299 --> 00:16:35.882
나는 어려서 다듬이질하는
것을 많이 보았다.

00:16:35.982 --> 00:16:38.483
풀 먹인 흰 빨래가 뽀뽀해지면,

00:16:38.583 --> 00:16:41.104
뽀뽀해진다는 거는 조금 촉촉해지면

00:16:41.204 --> 00:16:45.221
다듬잇돌에 맞게 네모로 접어
놓고 방망이질을 했다.

00:16:45.321 --> 00:16:53.163
빨래가 너무 마르면 입으로 물을
뿜어서 다시 뽀뽀하게 한 뒤에

00:16:53.263 --> 00:16:56.913
물기가 있게 한 다음에
다듬이질을 했다.

00:16:57.013 --> 00:17:00.138
나는 이따금 바가지로
찬물 심부름도 했다.

00:17:00.238 --> 00:17:05.008
바가지를 뿌린 다음에 둥둥 두드리는
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

00:17:05.108 --> 00:17:08.230
다듬이질은 혼자서도 하고
둘이 마주앉아 하기도 했다.

00:17:08.330 --> 00:17:09.479
과거 회상입니다.

00:17:09.579 --> 00:17:13.770
과거에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
추억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.

00:17:13.870 --> 00:17:16.478
혼자 하는 소리는 좀
둔탁한 느낌이었지만

00:17:16.578 --> 00:17:20.319
맞다듬이질을 할 때의 그 소리는
경쾌하고도 청량한 것이었다.

00:17:20.419 --> 00:17:23.556

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,
마주 앉아서 하는 거 있죠.

00:17:23.656 --> 00:17:27.600

휘영청 달이 밝은 가을밤에
혼자 뒷간에 앉아 있자면

00:17:27.700 --> 00:17:30.937

마을은 온통 규 경쾌하고 청량한
다듬이 소리투성이였다.

00:17:31.037 --> 00:17:32.643

옛날에 다듬이질을 많이 했나봐요.

00:17:32.743 --> 00:17:35.667

소년은 그 다듬이 소리에
취했다가 달 한 번 쳐다보고

00:17:35.767 --> 00:17:38.268

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이
아랫배에다 힘을 주었다.

00:17:38.368 --> 00:17:40.774

화장실에 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

00:17:40.874 --> 00:17:42.704

그러다가 뒷간을 나와 보면

00:17:42.804 --> 00:17:45.099

환히 불 밝은 아랫방문에
맞다듬이질하는 그림자가 보였다.

00:17:45.199 --> 00:17:48.408

그때 사립문 뒤에 세워 놓은
수숫대의 마른 잎사귀가

00:17:48.508 --> 00:17:49.923

우수수 소리를 내기도 했다.

00:17:50.023 --> 00:17:51.689

그러니까 그때 배경
묘사도 되기도 하고

00:17:51.789 --> 00:17:53.802

옛날 추억에 젖어있는
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00:17:53.902 --> 00:17:56.525

어디선가 킁킁 개 진지
소리도 들려왔다.

00:17:56.625 --> 00:17:59.329

다듬이질을 하다가 밤이 이슬해지면

00:17:59.429 --> 00:18:03.277

감 껍질 말린 것을 내다
놓고 주근주근 먹었다.

00:18:03.377 --> 00:18:06.255

도토리묵이나 메밀묵으로

밤참을 하는 일도 있었다.

00:18:06.355 --> 00:18:09.333

그러면 소년은, 소년이
바로 누구겠습니까?

00:18:09.433 --> 00:18:10.776

작가 자신일 것 같지 않아요?

00:18:10.876 --> 00:18:13.818

소년은 배 아픈 핑계로 홍시나
곶감을 졸랐었다.

00:18:13.918 --> 00:18:15.515

나 배가 아파, 곶감 먹고
싫어, 이런 거예요.

00:18:15.615 --> 00:18:18.016

홍시나 곶감을 먹으면
설사도 그친다고 했다.

00:18:18.116 --> 00:18:21.001

다듬잇돌은 여름에도 차가웠다.

00:18:21.101 --> 00:18:25.474

그래서 어린 시절의 어느 날 나는 그 서늘한
다듬잇돌을 베고 누운 일이 있었다.

00:18:25.574 --> 00:18:29.347

그때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는 깜짝
놀라 나를 일으켜 앉히셨다.

00:18:29.447 --> 00:18:32.304

다듬잇돌을 베고 누우면 입이 돌아간다.
알았니?

00:18:32.404 --> 00:18:34.293

너무 추우니까 입이
돌아간다는 거죠.

00:18:34.393 --> 00:18:36.451

그 후 나는 한 번도
그거 벤 일이 없다.

00:18:36.551 --> 00:18:39.482

찬 것을 베고 누우면 안면 신경이
마비될 수 도 있다는 말은

00:18:39.582 --> 00:18:41.355

내가 다 커서 들은 것이다.

00:18:41.455 --> 00:18:45.716

다듬잇돌을 보면 그때 어머니가 놀라시던
그 모습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.

00:18:45.816 --> 00:18:47.234

누구를 떠올리는 겁니까?

00:18:47.334 --> 00:18:49.916

다듬잇돌을 통해서 어머니의
모습도 떠올리고 있는 거죠.

00:18:50.016 --> 00:18:52.863

다듬잇방망이를 보아도 또
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.

00:18:52.963 --> 00:18:57.192

그러니까 다듬잇돌 하나를 통해서 여러
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

00:18:57.292 --> 00:18:58.384

과거에 대한 추억들을.

00:18:58.484 --> 00:19:00.850

중학교 3학년 때 우리는
산골로 피란을 갔었다.

00:19:00.950 --> 00:19:02.372

전쟁 중이었나봐요.

00:19:02.472 --> 00:19:04.981

그런데 그 이듬해에
호열자가 돌아서,

00:19:05.081 --> 00:19:08.085

호열자는 콜레라라고 합니다.

00:19:08.185 --> 00:19:11.016

호열자가 돌아서 온 동네에
울음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다.

00:19:11.116 --> 00:19:12.469

사람들 막 죽고 그랬었나봐요.

00:19:12.569 --> 00:19:15.914

그때 세살이던 내 아우도
그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다.

00:19:16.014 --> 00:19:21.184

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하루
스물네 시간씩 한 주일을 견디셨다.

00:19:21.284 --> 00:19:23.845

아프니까 그 아이를
안고 견디셨던 거죠.

00:19:23.945 --> 00:19:27.982

온몸에 마마 같은 것이,
마마는 천연두 같은 거지.

00:19:28.082 --> 00:19:29.491

곰보 자국처럼 이렇게 났나봐요.

00:19:29.591 --> 00:19:34.118

마마 같은 것이 마치 팔을
삶아 뿌린 듯이 돌아서

00:19:34.218 --> 00:19:36.955

방바닥에 누일 수가 없었다.

00:19:37.055 --> 00:19:39.104

방바닥에 누을 수가 없을 정도로

00:19:39.204 --> 00:19:41.971

세 살짜리 아이가 아프면
얼마나 끔찍하겠어요.

00:19:42.071 --> 00:19:44.352

얼굴도 눈코를 분간할 수 없고

00:19:44.452 --> 00:19:47.965

얼굴에 팔처럼 딱지
얹고 그런 거니까.

00:19:48.065 --> 00:19:50.826

입안도 다 터져서 쌀 한
톨 넣을 수가 없었다.

00:19:50.926 --> 00:19:55.123

그때 나는 어머니가 시키시는
대로 국수를 만들었다.

00:19:55.223 --> 00:19:57.257

먹을 수 없으니까.

00:19:57.357 --> 00:20:01.248

우선 밀가루를 개고 그것을
다듬잇방망이로 얇게 밀어서

00:20:01.348 --> 00:20:03.701

가늘게 찢어다가 끓이는 것이다.

00:20:03.801 --> 00:20:06.491

다듬이 방망이를 가지고 국수를
만드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.

00:20:06.591 --> 00:20:09.291

그러면 어머니는 한 가닥씩
아우의 입에 넣어 주셨다.

00:20:09.391 --> 00:20:11.138

자다가 문득 깨서 일어나 보면,

00:20:11.238 --> 00:20:13.411

어머니는 그 애를 안고
말없이 들여다보고 계셨다.

00:20:13.511 --> 00:20:15.076

너무 슬프다. 그렇죠?

00:20:20.358 --> 00:20:23.558

제가 기억하기로는 살았던
거로 기억하는데.

00:20:23.658 --> 00:20:27.172

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, 가장
간절한 기원이 담긴 그런 눈이었다.

00:20:27.272 --> 00:20:30.597

아, 우리 어머니의 그 애절한
기구가 하늘에 사무쳤음인가,

00:20:30.697 --> 00:20:33.353

기구함, 소원을 빈 게
하늘에 사무쳤음인가.

00:20:33.453 --> 00:20:35.927
내 아우는 마침내 살아났다.

00:20:36.027 --> 00:20:39.005
그 애가 결혼식을 마치고
신혼여행을 떠날 때

00:20:39.105 --> 00:20:42.000
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
어머니의 그 눈을 생각했다.

00:20:42.100 --> 00:20:44.226
어머니 정말 대단합니다.

00:20:44.326 --> 00:20:47.578
그 애의 콧잔등에는 지금도 마마
자국이 몇 개 흠어져 있다.

00:20:47.678 --> 00:20:52.030
하지만 그 애는 그 자국에 어린
슬픈 사연을 모를 것이다.

00:20:52.130 --> 00:20:55.212
아니, 이 글을 쓰는 나
자신인들 무엇을 안다 하랴.

00:20:55.312 --> 00:20:57.220
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
어찌 알겠습니까?

00:20:57.320 --> 00:20:59.198
이제 다듬잇돌은 서서히
사라지고 있다.

00:20:59.298 --> 00:21:02.530
바야흐로 지금은 물에
빨아서 다리지도 않고

00:21:02.630 --> 00:21:05.404
입는 옷의 시대인 것이다.

00:21:05.504 --> 00:21:09.320
그래서 내 아내는 그것으로
북어나 두들길 뿐이다.

00:21:09.420 --> 00:21:13.658
짤하고 한 구석이 축축해지는
그런 내용이었습니다.

00:21:13.758 --> 00:21:15.592
어휘 풀이 됐고요.

00:21:15.692 --> 00:21:16.953
지문 소화제 봅니다.

00:21:17.053 --> 00:21:20.037
혼자 다듬이질을 할 때는
맞다듬이질을 할 때와 달리

00:21:20.137 --> 00:21:22.017

경쾌하고 청량한 소리가
났다, X쵸.

00:21:22.117 --> 00:21:25.717

맞다듬이질을 할 때 경쾌한 느낌이
났다 그랬으니까 X입니다.

00:21:25.817 --> 00:21:27.982

글썸이가 아우와 관련된
일화를 떠올리게 하는

00:21:28.082 --> 00:21:30.014

매개체 역할을 한재를
6음절로 쓰시오.

00:21:30.114 --> 00:21:31.785

다듬이방망이입니다.

00:21:31.885 --> 00:21:34.548

그거로 국수를 만들었던 일을
떠올리고 있는 거잖아요.

00:21:34.648 --> 00:21:36.265

1번 문제 보겠습니다.

00:21:36.365 --> 00:21:38.050

윗글에 대한 설명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1:38.150 --> 00:21:42.026

현재와 어린 시절의
경험을 비교하고 있다.

00:21:42.126 --> 00:21:46.715

현재의 경험은, 지금 아내는
북어나 두들길 뿐이다.

00:21:46.815 --> 00:21:47.856

이렇게 이야기했고

00:21:47.956 --> 00:21:50.199

어린 시절의 경험은
다듬이질했던 경험.

00:21:50.299 --> 00:21:53.723

다른 경험이니까 비교하고 있다.

00:21:53.823 --> 00:21:58.626

옛날에는 다듬이방망이로
다듬이질을 하는 경험이었다면

00:21:58.726 --> 00:22:01.189

지금은 아내가 북어나
두들길 뿐이다.

00:22:01.289 --> 00:22:02.960

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적절하죠.

00:22:03.060 --> 00:22:05.898

소재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을
회상하고 있다, 적절하고요.

00:22:05.998 --> 00:22:08.142
옛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
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.

00:22:08.242 --> 00:22:09.763
이것도 맞죠, 옛것의
추억들이 없어져가고 있고

00:22:09.863 --> 00:22:14.446
그다음에 지금은 다듬잇돌을
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

00:22:14.546 --> 00:22:16.101
아쉬움 드러내고 있다, 맞고요.

00:22:16.201 --> 00:22:19.517
추상어나 개념어보다는 구체어를
많이 사용하고 있다.

00:22:19.617 --> 00:22:22.918
맞죠, 국수라든가 어린 시절
하나하나의 모든 소재들이

00:22:23.018 --> 00:22:26.135
실제로 있었던 소재들이니까 구어체를
많이 쓰고 있다, 맞고요.

00:22:26.235 --> 00:22:30.341
만연체의 문장으로 한국인 고유의
정서를 재현하고 있다.

00:22:30.441 --> 00:22:32.060
이게 조금 어렵습니다.

00:22:32.160 --> 00:22:36.310
만연체의 반대말이 간결체입니다.

00:22:36.410 --> 00:22:41.032
그런데 여기서 보면 만연체인지 간결체인지
이거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요.

00:22:41.132 --> 00:22:43.496
만연체, 문장이 길게
길게 나타나는지

00:22:43.596 --> 00:22:46.546
문장이 짧게 짧게 나타나는지 이거를
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

00:22:46.646 --> 00:22:47.848
세모칠게요.

00:22:47.948 --> 00:22:51.180
문장의 길이나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
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

00:22:51.280 --> 00:22:55.874
긴 문장이냐, 짧은 문장이냐 이렇게

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

00:22:55.974 --> 00:22:57.586

그래서 이거는 세모 치고요.

00:22:57.686 --> 00:22:59.482

한국인 고유의 정서를
재현하고 있다.

00:22:59.582 --> 00:23:01.036

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더라고요.

00:23:01.136 --> 00:23:03.993

한국인 고유의 정서라고 하면
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거를

00:23:04.093 --> 00:23:06.708

한국인 고유의 정서라고
이야기할 수는 없는데

00:23:06.808 --> 00:23:10.032

다듬잇돌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인
고유의 정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.

00:23:10.132 --> 00:23:11.552

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면

00:23:11.652 --> 00:23:15.724

역시 한국인 고유의 정서라고
이야기할 수 없고.

00:23:15.824 --> 00:23:20.891

또 다시 말하면 다듬잇돌을
두들기고 있었던

00:23:20.991 --> 00:23:24.225

어머니의 모습은 또 한국인 고유의
정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.

00:23:24.325 --> 00:23:25.754

문제가 참 애매하더라고요.

00:23:25.854 --> 00:23:28.559

나머지 4개가 전부 다 맞아서
정답이 5번이기는 한데.

00:23:28.659 --> 00:23:33.192

제가 생각할 때는,
뒤에 해설지도 봤는데

00:23:33.292 --> 00:23:35.640

간결하고 소박한
문체라고 이야기했는데

00:23:35.740 --> 00:23:37.370

이거 때문에 답이라고
이야기를 했더라고요.

00:23:37.470 --> 00:23:40.008

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

00:23:40.108 --> 00:23:42.623

이것만 가지고 답을
찾기는 좀 어렵습니다.

00:23:42.723 --> 00:23:47.425

짧은 문장을 사용, 긴 문장을 사용
판단을 좀 유보하는 게 좋고요.

00:23:47.525 --> 00:23:50.981

왼쪽에 나오는 내용이
좀 짧기는 짧아요.

00:23:51.081 --> 00:23:54.186

긴 문장이 나온다는 이야기는
수식도 되게 많아서

00:23:54.286 --> 00:23:57.780

문장이 두세 줄까지 이어지는
긴 문장의 구조들이 많은데

00:23:57.880 --> 00:24:01.028

여기서 보면 이사한 일이 있다,
세월이 지나 생각했다,

00:24:01.128 --> 00:24:02.348

많이 보았다, ~했다,

00:24:02.448 --> 00:24:06.479

이런 것들이 한 줄에 하나의
문장으로 나타나니까

00:24:06.579 --> 00:24:08.644

간결한 문장이라고
이야기할 수 있는데

00:24:08.744 --> 00:24:11.901

제가 봤을 때 썩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
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
00:24:12.001 --> 00:24:14.053

그렇게 말씀드리는 게
나을 것 같아요.

00:24:14.153 --> 00:24:15.059

넘어갈게요.

00:24:15.159 --> 00:24:19.214

윗글을 감상할 때 보기의 밑줄 친
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00:24:19.314 --> 00:24:21.728

밑줄 친 부분은 정서적 만족이다.

00:24:21.828 --> 00:24:25.191

감동이나 공감일 수
있다고 이야기를 했죠.

00:24:25.291 --> 00:24:29.445

나가 국수를 만드는 모습은 아우에 대한
나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가 하는군.

00:24:29.545 --> 00:24:31.205

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, 맞죠.

00:24:31.305 --> 00:24:34.230

빠져있네요.

00:24:35.782 --> 00:24:38.323

책에 선택지 보겠습니다.

00:24:38.423 --> 00:24:41.979

2번, 찬 것을 베고 누우면
신경이 마비될 수 있다는 문장은

00:24:42.079 --> 00:24:44.800

독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,
2번이 정답입니다.

00:24:44.900 --> 00:24:48.232

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
제공한다는 게 전혀 엉뚱하잖아요.

00:24:48.332 --> 00:24:51.219

여기서는 공감이고
감동이고 이런 건데

00:24:51.319 --> 00:24:56.343

여기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
정서를 제공한다는 게 틀렸죠.

00:24:56.443 --> 00:24:59.732

3번은 소년이 배아픈 핑계로 홍시나
곶감을 달라고 졸랐던 것은

00:24:59.832 --> 00:25:02.596

유사한 경험을 한 독자들이
공감할 수 있다, 당연합니다.

00:25:02.696 --> 00:25:06.331

4번은 마마 자국은 병에 걸린
동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을

00:25:06.431 --> 00:25:09.066

떠올리는 장면에서 가슴
뭉클하다, 가능하죠.

00:25:09.166 --> 00:25:12.391

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린 동생을
안고 하루 24시간씩 일주일

00:25:12.491 --> 00:25:15.878

견디셨다는 부분에서 자식에 대한
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진다.

00:25:15.978 --> 00:25:16.824

당연합니다.

00:25:16.924 --> 00:25:18.366

정답은 2번입니다.

00:25:18.466 --> 00:25:20.438

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은 아니죠.

00:25:24.249 --> 00:25:27.486

다듬잇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
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?

00:25:27.586 --> 00:25:30.776

과거 회상의 매개체는 당연히 맞죠.

00:25:30.876 --> 00:25:32.560

과거에 대해 회상하고 있는 거니까.

00:25:32.660 --> 00:25:35.631

그다음에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.

00:25:35.731 --> 00:25:37.523

이게 ㄱ, ㄴ이 바뀌었네요.

00:25:37.623 --> 00:25:42.484

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는 적절하죠.

00:25:42.584 --> 00:25:46.406

과거문화에 대한 향수 가능하고요.

00:25:46.506 --> 00:25:49.081

다듬잇돌이 사라진
것이 아쉬움이니까.

00:25:49.181 --> 00:25:52.046

어머니에 대한 자식의
평가가 나오지는 않고

00:25:52.146 --> 00:25:54.470

인물의 복잡한 내면 갈등
없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.

00:25:54.570 --> 00:25:57.282

여러분의 책은
ㄱ, ㄴ, ㄷ, ㄹ인데

00:25:57.382 --> 00:26:00.538

저는 이렇게 만들었네요,
정신이 없었나봐요.

00:26:00.638 --> 00:26:03.390

잠을 못 잤나? 정신이 없었네요.

00:26:03.490 --> 00:26:06.255

여러분, 여기까지고
이번 강은 짧아요.

00:26:06.355 --> 00:26:08.172

뒤에 거는 엄청나게 길죠.

00:26:08.272 --> 00:26:11.184

뒤에 거는 비평문,
속향전, 젊은 느티나무.

00:26:11.284 --> 00:26:12.362

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

00:26:12.462 --> 00:26:14.373

세 작품이 같이 묶여
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.

00:26:14.473 --> 00:26:18.651
이 강은 26분밖에 안 되니까
짧은 강의라고 생각하시고

00:26:18.751 --> 00:26:20.959
쉬어간다고 생각하고..
아니, 쉬어가면 안 되죠.

00:26:21.059 --> 00:26:23.985
짧은 강의도 액기스가
잘 담겨 있으니까

00:26:24.085 --> 00:26:27.920
수필이라든가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

00:26:28.020 --> 00:26:30.981
수필에서는 글쓴이가 말하는
게 직접 나타나 있으니까

00:26:31.081 --> 00:26:33.210
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
해보시면 되겠습니다.

00:26:33.310 --> 00:26:35.327
다음 시간에 뵈게요,
수고하셨습니다.